

중·저예산 장편영화 투자 이끌어낸다

▶ 전주프로젝트마켓 '전주시네마펀드' 조성 발표

시나리오 먼저 보고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조건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1억원 내외 투자금 지원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가 주최하는 제9회 전주프로젝트마켓이 '전주시네마펀드(JCF)' 조성을 발표했다. 전주시네마펀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극영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총 1억 원 규모의 전주시네마펀드는 매년 10편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1천만 원의 기획 개발금과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전주시네마펀드 조성에는 피프티원케이(51k)와 배우 소지섭이 참여했다. 이들은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전주시네마펀드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네마펀드의 특징 중 하나는 영화산업의 주체들과 퍼스트룩 옵션(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계약할 수 있는 권리)을 조건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점이다. 이에 펀드 조성에 참여한 제작·투자사는 선정

된 프로젝트를 제작과 투자의 목적으로 우선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직위는 중·저예산 장편영화의 제작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 이와 함께 조직위가 제작·투자하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와 연계해 제작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네마펀드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JCP 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1편 내외의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선정, 1억 원 내외의 제작 투자를 받는다. 이번에는 지난해 전주프로젝트마켓에서 소개된 <시인의 사랑>(감독 김양희)이 JCP 2017로 선정돼 제작으로 이어진다. 한편 전주시네마펀드 조성에는 피프티원케이(51k)와 배우 소지섭이 참여했다. 이

들은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전주시네마펀드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안현준 전주프로젝트마켓 팀장은 "전주시네마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의 규모와 폭을 확대하고, 저예산 장편영화의 제작 가능성을 높여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전주시네마펀드를 통해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4월 27일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인 5월 3일 예정된 '전주시네마펀드(JCF)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완주 송광사, 나·비·채 인문학 여행 실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송광사 문화재와 떠나는 나·비·채 인문학 여행'을 실시한다. '나누고 비우고 채운다'라는 의미를 지닌 나비채 인문학 강좌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전통산문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이다. 강좌는 송광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웅전(보물 제1243호)의 보물 3점과 조선 중기 송광사 중창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벽암각성을 주제로 한다. 올해는 불교에 대한 이해·불교 체험·불교미술·사찰순례 등을 주제로 총 19회를 실시하며, 향후 5년간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강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송광사 사운당에서 나종우 전북문화원장의 '조선 후기 송광사와 벽암각성'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이철량 화백과 함께하는 '한국화 교실'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일반 시민이 우리 전통 그림을 직접 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철량 화백과 함께하는 '한국화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한국화 교실'은 성인 대상 실기 강좌로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열린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은 '지·필·묵' 등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한국화에 담긴 정신' 등 이론 강좌와 '모사'나 '아외스케치' 등을 통해 한국화의 체계적인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실기 강좌로 운영된다. 교육 강사로 나서는 이철량 전북대 예술대학 명예교수는 80년대 우리 화단에서 수묵화 운동이 활발할 때 중심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한국화가로서 지역 내 한국화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좌는 무료(재료비 별도)로 진행된다. 신청은 30일까지이다. /정해은 기자



화사한 봄꽃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화사한 봄꽃과 함께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2017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국내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성남시립교향악단이 고창군민을 위해 카르멘 모음곡,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중 겨울, 백조의 호수 모음곡 등 평소 우리에게 친숙한 환상적인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협연으로 소프라노 김민조가 한

고창문화전당 신춘음악회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 성남시립교향악단 열연

해설로 클래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온 금난새의 지휘와 함께 진행될 이번 공연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주고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이며(회원 20% 할인) 예매는 오는 30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에서 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꿈다락 예술감상교육 공모 선정

김제시(김제문화예술회관)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토요 여가 문화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예술 향유 프로그램인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예술 감상 체험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예술향유 능력을 높이고 문화예술 정서 함양과 가족 간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공연 & 전시 ◀◀

28일 전주시립합창단 '사랑의 노래들 폴카'

전주시립합창단(지휘 김철)이 제128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2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갖는다. 공연의 첫 무대는 Mendelssohn이 봄의 색채와 움직임을 잘 묘사한 '종달새의 노래'로 연다. 이 곡은 무반주 혼성합창을 위한 6개의 가곡 작품 '봄의 노래' 중 4번째 곡으로 종달새의 힘찬 비상과 아름답게 노래하는 모습을 밝고 경쾌한 리듬과 선율로 묘사했다. 이어 '이른 봄' '봄의 찬미' 등 곡으로 봄 마중물 나신다. 현존하는 현대 독일 작곡가 Franz M. Herzog의 '영원한 빛'과 Michael Ostrzyga의 '주피터'의 무반주 합창곡은 한국에서 초연한다. P. D. Q. Bach·Peter Schickel의 '사랑의 노래들 폴카'는 혼성합창과 다섯 개의 손을 위한 작품으로 '그의 수줍은 애인에게, 처녀들이여 시간을 아껴라, 달아오른 목동이 연인에게, 다양한 연인이여! 왜 그리 참뻑한가요, 한 남자와 그의 연인이었네, 변치 않는 사랑, 실리아에게 하는 노래, 잘 가, 감사할 줄 모르는 배신자, 실리아가 누구인가요' 등 연인의 사랑이야기가 유쾌하게 그려진다. 본 윌리엄스가 셰익스피어의 시에 붙인 노래 '다섯 길의 바다 밑' '구름 덮인 탑들' '산 넘어 계곡을 넘어' 등은 몽환적으로 구현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남원의 봄 축제에 몰들다

춘향제 (5월)

철쭉제 (4~5월)

지리산둘레길 (3~5월)

요천번 벚꽃 (4월)

여행은 판다를 나와의 만남

요천자전거리 (5월)

춘향남원 사랑의 명진

남원시